

미국 내 중동 아웃바운드 여행 시장 동향

'26. 9. 29.(화) / 뉴욕지사

□ 분석 배경 및 목적

- 중동 지정학 리스크 발생 후 중동 여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대
 - SITE Global(인센티브 여행 전문기관)의 2026년 3~4월 조사*에서 미국 응답자의 중동지역 여행 의향 순감도(Net Sentiment)는 -82%로 조사 대상 지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목적지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줌
 - * 193명의 글로벌 인센티브 여행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
 - 한편, 글로벌 관광 전략 컨설팅 및 마케팅 전문 기관 Trove Tourism Development Advisors가 2026년 2월 미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79%가 경제적·지정학적 불확실성에도 국제여행을 계속 우선시한다고 응답한 반면, 52%는 목적지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에 매우 민감하다고 응답함
 - 2026년 8월 Reuters/Ipsos(국제 뉴스통신사·시장조사기관) 조사에서도 미국인의 50%가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이 향후 1년간 중동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했으며, 중동지역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줌
- 항공운항 및 여행수요는 회복 조짐
 - 반면, 2026년 하반기 들어 걸프지역 주요 항공사의 운항 및 탑승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중동 관광시장은 여행심리 위축과 항공시장 회복이 동시에 나타나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음
 - 다만 항공사의 공급 및 탑승률 회복이 미국인의 중동 여행심리 회복을 직접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실제 관광수요 회복 여부를 여행심리와 항공수요를 함께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음

- * (출처) SITE Global, 「Destination selection in a time of geopolitical uncertainty」 (2026-04-09)
- * (출처) Trove Tourism Development Advisors, 「Capturing the U.S. Outbound Traveler: A February 2026 Survey on Uncertainty in Traveler Decision Making」 (2026-03-23)
- * (출처) Reuters/Ipsos, 「As Iran war drags on, Americans are bracing for more chaos in Middle East」 (2026-08-06)

□ 미국의 기존 중동 여행행태

○ 글로벌 환승 허브로서의 중동

- 중동은 에미레이트 항공의 홈인 두바이 국제공항(DXB)과 에티하드 항공의 홈인 아부다비 국제공항, 카타르항공의 홈인 하마드 국제공항(DOH) 등 세계적인 항공사와 중동 거점 공항이 있는 지역으로 미국에서 아프리카, 인도,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나 몰디브 등으로 가는 주요 경유지이자 이 노선들의 가격과 서비스 측면에서 경쟁력이 높아 많은 미국인들이 환승 거점으로 이용되고 있음

○ 항공 환승과 현지 관광이 결합된 여행구조

- 카타르항공(Qatar Airways)은 아메리칸항공(American Airlines)과의 제휴를 통해 미국 내 220개 이상 도시에서 카타르를 경유해 중동·아프리카·인도 아대륙의 30개국 이상으로 연결되는 항공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도하 환승시간이 12~96시간인 승객을 대상으로 최대 4박의 4·5성급 호텔을 제공하는 스톱오버(Stopover) 상품을 운영하며, 환승객의 현지 체류를 관광수요로 연결하고 있음

<그림1> 카타르항공-아메리칸항공 제휴를 통한 미국-중동 및 제3국 연결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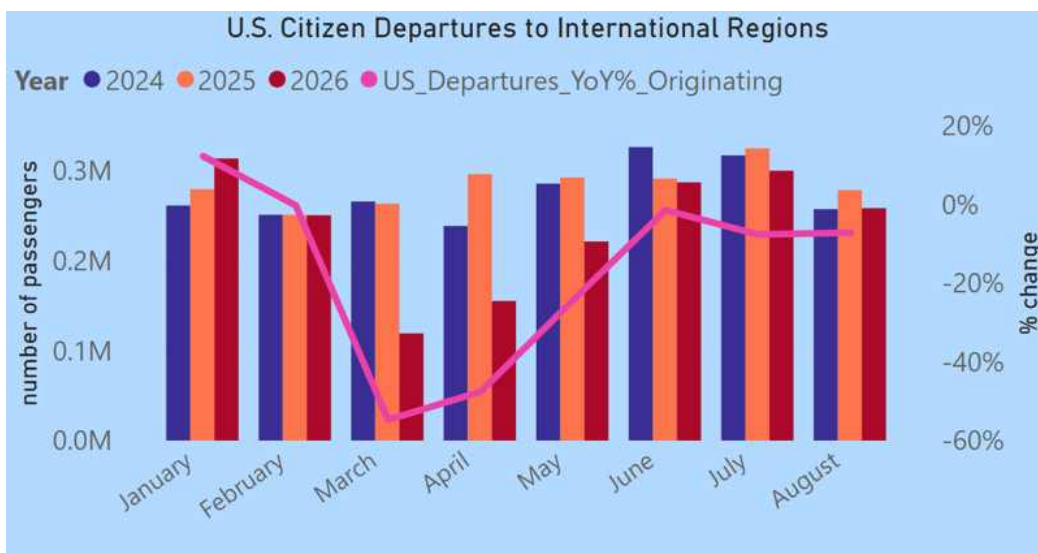
* (출처) 카타르항공(Qatar Airways)

□ 미국-중동 항공시장 변화

○ 미국 시민권자 중동 지역 항공 여행 추이

- 미 국제무역청(ITA)의 미국 국제 항공 여행 및 승객 수송 통계 데이터(APIS I-92)에 의하면 2026년 1~8월 중동으로 출국한 미국인 항공 이용객 수는 1,905,259명으로 2024년 동기 2,203,082명, 2025년 동기 2,276,610명 대비 각각 13.4%, 16.3% 감소하였으며 중동 전쟁 발발 직후인 3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음

<표1> 2024년-2026년 1-8월 월별 미국인 중동행 항공 이용객 추이



<표2> 2024년-2026년 1-8월 월별 미국인 중동행 항공 이용객(단위: 명)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1월	261,357	279,384	313,604
2월	251,052	250,961	250,462
3월	265,824	263,214	119,131
4월	238,580	296,104	155,219
5월	285,672	292,420	221,324
6월	326,279	291,200	287,071
7월	317,062	324,839	300,033
8월	257,256	278,488	258,415
합계	2,203,082	2,276,610	1,905,259

* (출처)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APIS I-92 Data

○ 분쟁에 따른 일시적 운항 차질 이후 회복

- 2026년 2월 말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 이후 중동지역 항공운항이 차질을 빚었으나, 하반기 들어 걸프지역 주요 항공사를 중심으로 항공 공급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
- 에미레이트항공(Emirates)은 2026년 7~8월 860만 명 이상의 승객을 수송했으며, 분쟁 이전 운항능력의 약 93%까지 공급을 회복함. 서아시아·유럽·중동·미주·아프리카 등 주요 지역 노선의 여림철 좌석이용률은 75%를 상회함
- 에티하드항공(Etihad Airways)은 2026년 8월 탑승률 92%를 기록했으며, 공급좌석거리(ASK, Available Seat Kilometres)는 전년 대비 15~17% 증가함

* (출처) Reuters, 「Emirates says winter bookings up on some routes after summer rebound」 (2026-09-14)

* (출처) Reuters, 「Etihad Airways sees strong demand, higher passenger capacity despite Iran war, CEO says」 (2026-09-14)

- 이에, <표1, 2>과 같이 2026년 3~5월의 중동행 미국인 항공객 이용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급감하였지만 6월부터 전년수준으로 회복한 것을 볼 수 있음.

□ 중동 관광업계의 미국시장 대응

○ 중동 항공사의 차별화된 미국시장 마케팅 전략

- 에미레이트항공(Emirates): 프리미엄 경험 · 브랜드 마케팅 강화
 - 미국 주요 도시와 두바이를 연결하는 광범위한 노선망을 기반으로 프리미엄 서비스와 브랜드 경험을 강조하고 있음. 2026년에는 미국프로테니스협회(USTA)의 US 오픈 공식 항공사 파트너십을 15년째 이어가며 뉴욕 현지에서 프리미엄 접객 공간을 운영하는 등 항공서비스 자체를 체험형 브랜드 마케팅으로 확장하고 있음. 또한 2026년 여름에는 두바이 스톱오버 고객을 대상으로 숙박 및 24·48시간 맞춤형 일정 등을 결합한 상품을 운영함
- 에티하드항공(Etihad Airways): 미국 노선 확대 · 현지 항공사 제휴를 통한 접근성 강화
 - 미국 시장에서는 신규 노선 및 운항편 확대를 통해 직접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미국 항공사인 제트블루(JetBlue)와의 공동 운항 및 상용고객 우대 프로그램 제휴를 통해 미국 내 연결성을 강화하고 있음. 2026년에는 시카고 노선을 하루 2회로 확대하고 샬럿 노선을 일일 운항으로 증편하는 등 미국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함
- 카타르항공(Qatar Airways): 스톱오버 상품의 프리미엄 · 럭셔리 세분화
 - 미국 주요 도시와 도하를 연결하는 항공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환승시간 12~96시간 승객에게 최대 4박의 4·5성급 호텔과 관광체험을 제공하며, 일반 · 프리미엄 · 프리미엄 비치 · 럭셔리 등으로 스톱오버 상품을 세분화하고 있음. 특히 2026년에는 포뮬러원(F1) 카타르 그랑프리 관람을 결합한 스톱오버 상품까지 출시해 항공 환승을 목적지 체험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차별화

- 이처럼 중동 주요 항공사는 미국시장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에미레이트항공은 프리미엄 브랜드 경험, 에티하드 항공은 미국 내 항공 접근성 및 제휴 확대, 카타르항공은 스톱오버 상품의 세분화·고급화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중동 관광 업계의 대응 한계 및 위험요인

○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항공운항 위험요인

- 미국 항공사와의 제휴 및 광범위한 항공 네트워크에도 불구하고, 중동지역의 군사적 충돌은 항공운항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026년 분쟁 당시 중동지역에서는 항공편 취소와 영공 폐쇄 등 운항 차질이 발생했으며, 향후에도 지정학적 상황에 따라 항공운항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2026년 9월 현재도 중동지역의 긴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으로, 9월 13일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 공격이 발생하는 등 지역 내 추가적인 긴장 고조 가능성이 존재함. 이에 따라 향후에도 항공노선 변경, 운항 취소 및 여행객의 목적지 회피 가능성이 위험요인으로 남아 있음

* (출처) 미국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Worldwide Caution」 (2026-07-22)

* (출처) Reuters, 「Houthi attack Saudi Arabia as Gulf-Iran talks are postponed」 (2026-09-13)

○ 항공 네트워크 회복과 여행심리 간의 괴리

- 에미레이트항공(Emirates)은 2026년 7~8월 분쟁 이전 운항능력의 93%까지 회복하고 860만 명 이상의 승객을 수송했으며, 에티하드 항공(Etihad Airways)도 8월 탑승률 92%, 공급좌석거리(ASK, Available Seat Kilometres) 전년 대비 15~17% 증가를 기록함

- 그러나 항공공급이 회복되더라도 지정학적 불안이 지속될 경우 미국인 여행객의 목적지 선택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중동 관광시장은 “항공수요 회복” 과 “여행심리 위축” 이 동시에 나타나는 위험요인을 안고 있음

< 출처 >

<https://siteglobal.com/research/pulse-insites/destination-selection-in-a-time-of-geopolitical-uncertainty/>
<https://www.trovetourism.com/news/capturing-the-u-s-outbound-traveler-a-february-2026-survey-on-uncertainty-in-traveler-decision-making>
<https://www.reuters.com/world/middle-east/iran-war-drags-americans-are-bracing-more-chaos-middle-east-reutersipsos-poll-2026-08-06/>
<https://www.qatarairways.com/en-us/partners-codeshare/american-airlines1.html>
<https://www.qatarairways.com/en-us/offers/qatar-stopover.html>
<https://www.etihad.com/en-us/news/etihad-airways-and-the-department-of-culture-and-tourism-abu-dhabi-celebrate-record-success-of-abu-dhabi-stopover-programme>
<https://www.reuters.com/world/middle-east/emirates-says-winter-bookings-up-some-routes-after-summer-rebound-2026-09-14/>
<https://www.reuters.com/world/etihad-airways-sees-strong-demand-higher-passenger-capacity-despite-iran-war-ceo-2026-09-14/>
<https://travel.state.gov/en/international-travel/travel-advisories/global-events/worldwide-caution.html>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diplomacy-stumbles-with-postponement-meeting-strait-hormuz-proposal-2026-09-13/>
<https://www.icelandair.com/flights/stopover/>
<https://www.turkishairlines.com/ko-kr/flights/stopover/>
https://www.singaporeair.com/en_UK/sg/plan-travel/privileges/
<https://www.trade.gov/us-international-air-travel-statistics-i-92-data>

붙임 미국 주요 경제지표 현황 및 관광 동향 1부. 끝.

붙임

미국 주요 경제지표 현황 및 관광 동향

※ 각 지표의 수치는 수시 업데이트 되어, 현재 공표된 수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경제지표

- (생산자 물가지수)

<2025-2026년 월별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PI)>

월	25.9월	25.11월	25.12월	26.1월	26.2월	26.3월	26.4월	26.5월	26.6월	26.7월	26.8월
Index	149.78	150.71	151.47	152.47	153.2	154.39	156.08	156.78	156.56	156.56	157.41
전월대비 증감률	0.4%	0.5%	0.5%	0.5%	0.5%	0.8%	1.1%	0.5%	△0.1%	0%	△0.4%

* Final demand price indexes 기준

- (소비자 물가지수)

<2025-2026년 월별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월	25.9월	25.11월	25.12월	26.1월	26.2월	26.3월	26.4월	26.5월	26.6월	26.7월	26.8월
Index	324.80	324.12	324.05	325.25	326.79	330.21	333.02	335.12	333.95	333.92	334.98
전월대비 증감률	0.3%	△0.21%	△0.02%	0.2%	0.3%	0.9%	0.6%	0.5%	△0.4%	0.1%	△0.4%

* BLS Consumer Price Index 기준

- (소비자 심리지수) '26년 8월 기준 미국 소비자심리지수는 51.7로, 전월(55.2) 대비 하락하며 둔화세를 보임.

<2025-2026년 월별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CSI)>

월	25.9월	25.10월	25.11월	25.12월	26.1월	26.2월	26.3월	26.4월	26.5월	26.6월	26.7월	26.8월
Index	55.1	53.6	51.0	52.9	56.4	56.6	53.3	49.8	44.8	49.5	55.2	51.7

* 출처: 미시건대학교(UMCSSENT) 및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FRED)

- (고용동향) 실업률 및 비농업 고용자 수 변화

<2025-2026년 월별 미국 실업률 및 비농업 신규 고용>

월	25.9월	25.11월	25.12월	26.1월	26.2월	26.3월	26.4월	26.5월	26.6월	26.7월	26.8월
실업률	4.4%	4.6%	4.4%	4.3%	4.4%	4.3%	4.3%	4.3%	4.2%	4.1%	4.1%
비농업 신규 고용(명)	+119,000	+64,000	+50,000	+160,000	-156,000	+214,000	+148,000	+63,000	+20,000	-23,000	+31,000

* 출처: 미국 노동통계국(BLS)

○ 업계동향

- (아웃바운드 수요) '26.8월 기준, 해외여행을 다녀온 미국인은 약 5,127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

< 2024-2026 미국 아웃바운드 통계 [출처 : NTTO, U.S Outbound to World Regions] > 미국

구분	2024	2025	2026
연간	106,376,575	109,261,808	-
1~8월	71,704,846	52,042,719	51,267,043
전년대비	-	-27.4%	-1.5%

□ 주요 경쟁국 미국인 입국통계

국가명	2026년 8월	전년 동기(월)	증감율	비고
대한민국	117,304	111,754	4.96%	
일본	197,400	194,525	1.5%	
베트남	72,433	51,166	41.6%	
태국	61,414	60,011	2.34%	
필리핀	80,264	78,308	2.5%	
홍콩	104,497	95,946	8.9%	'26년 7월 기준
대만	60,676	56,304	7.76%	'26년 7월 기준
싱가포르	65,306	49,956	30.73%	'26년 7월 기준
말레이시아	27,842	28,101	-0.92%	'26년 6월 기준
인도네시아	41,869	41,198	1.63%	'26년 7월 기준

* 2026년 중국 인바운드 관광객 데이터 확인 불가

** 출처: 각 국가별 관광청 홈페이지

< 데이터 출처 >

<https://www.eia.gov/dnav/pet/hist/rbrted.htm>

<https://www.tsa.gov/travel/passenger-volumes>

<https://www.bls.gov/cpi/factsheets/airline-fares.htm>